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5	2	4	3	2	4	3	5	4
6	3	7	5	8	2	9	4	10	5
11	3	12	4	13	3	14	2	15	3
16	1	17	1	18	3	19	1	20	1
21	5	22	5	23	3	24	4	25	5
26	1	27	3	28	4	29	4	30	5
31	4	32	3	33	2	34	3	35	1
36	2	37	5	38	1	39	2	40	2
41	5	42	5	43	5	44	4	45	5

[화법]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학생 4’는 장소의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이 가능해지고 문화 공연 등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용어의 개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회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목적 강당 신축 심의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의 체육수업에 대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며 강당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2’는 강당 신축 예정지인 야외 휴식 공간을 다수의 학생들이 사랑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3’은 강당 신축 후 학교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다목적 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 체육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의 논거로 활용한다면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료>를 통해 학교 개방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대 측 학생들은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당 신축을 반대하고 있기에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와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학교의 기본 목적이 학생 교육에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선호 시간대는 저녁이나 주말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을 명사 초청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학교를 개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기]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고,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운동장 일부가 훼손되어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이 축소될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양측 모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교류 확대를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③ 다목적 강당 개방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언급한 것은 반대 측만이다. 또한 양측 모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의 재정비를 언급하지 않았다. ④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⑤ 양측 모두,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하지 않았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문]

6. [출제의도] 초고를 읽고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초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감정노동자’인데, 감정노동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① 첫째 단락에서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둘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인을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단락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첫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개를 웅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감정노동자’라는 생소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예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다. ⑤ 넷째 단락에서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 수정하기

(다)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고, (나)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이 일반직장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통계 자료이므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적절하다. ② (가)–2는 감정노동자의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무시·폭언’이 40.1%를 차지한다는 자료이고, (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인터뷰이다. 그런데 초고의 둘째 단락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

고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2와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고객의 폭언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에는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다)의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이므로 (다)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① ㉠ ‘몇일’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게 쓴 것이므로 ‘며칠’로 고쳐야 한다. ③ ㉡의 ‘웃음’과 ‘말’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각각 필요하므로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할 말을 건네는’으로 바꿔야 한다. ④ ㉢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을 전문가로’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는’이므로 피동형인 ‘생각되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각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⑤ ㉣은 감정노동자가 전문가인 이유가 제시된 문장과 감정노동자를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바꿔야 한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규정 이해하기

‘꽃망울’은 받침 ‘ㅌ’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꼐망울]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타당하나, 23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알마당’은 받침 ‘ㄹ’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늦가을’은 받침 ‘ㅈ’ 뒤에 연결되는 ‘ㄱ’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23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맛먹다’는 받침 ‘ㅈ’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ㄷ]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홀낚시’는 받침 ‘ㅌ’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ㅅ’이 [ㅅ]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A형 15번과 동일]

13.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나날’은 준첩어, ‘겹겹’은 첩어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옳쪽’과 ‘일찍’은 부사이므로 ㉣에 해당하고, ‘즐겁-’은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14. [A형 14번과 동일]

15. [출제의도] 표준화법 적용하기

㉮에서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해 ‘모시고’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화자인 ‘혜연’이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인 ‘할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할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는 화자인 ‘삼촌’이 높여야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 ‘계시다(계시니)’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화자인 ‘삼촌’이 청자인 ‘혜연’을 기준으로 대상인 ‘어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어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청자인 ‘삼촌’이 화자인 ‘혜연’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 ‘-아요’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중세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체언의 모음의 종류와 중성의 유무에 따라 ‘을/를, 을/를’이 사용되었다. ㉠은 문장의 주어이고 주격조사 ‘ㅣ’가 사용되었으므로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 ‘빠니’에서 ‘ㅍ’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의 ‘△’, ‘붕’, ‘.’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④ 모음조화단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ㅏ’와 ‘ㅗ’는 양성 모음이므로 ㉤은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와 만나서 ‘ㄷ, ㅌ’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인문]

[17~20] <출전> 이정우, 「사건의 철학」

1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있다/없다’, ‘총다/나쁘다’라는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플라톤 이론이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플라톤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 파악하기

3문단의 ‘이때 ‘관여’와 ‘임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제’의 정도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의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제’의 정도라고 한다.’와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중심 개념과 다른 개념 비교하기

<보기>의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와 2문단의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를 보면,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유한성은 신과 같은 완전함을 지니지 못한 존재들을 규정하는 특징이고, 플라톤에게 ‘덜 존재한다’는 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와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를 보면,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은 것은 ‘데미우르고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의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제’하는가의 문제이다.’를 보면, 라이프니츠와 달리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플라톤이 창조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창조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의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재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를 보면 플라톤은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① ‘여부’는 ‘그리함과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 ⑤의 어휘 의미는 모두 적절하다.

[사회]

[21~23] <출전>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에서 안정화 정책의 변화 과정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통화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정책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외부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이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은 내부시차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와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가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은 ‘외부시차가 짧다.’와 통화정책은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시차가 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 정책은 ‘입법과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짧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비지출의 변화에 의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한 점을 참고할 때, 에서 정부는 재량적 재정정책의 하나인 추경예산을 늘려 편성한다면 총수요도 역시 늘어 경기침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6문단에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으므로, 조세징수액이 늘어날 경우 총수요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징수액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늘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소비자들의 소비지출과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활성화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전반적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비지출의 억제로 이어져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여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을 때’,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학]

[24~26] <출전> 김학준 외,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결빙방지단백질 이야기」

24. [출제의도] 글 전체의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 글은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 현상과 결빙방지단백질에 의한 어는점 내림 현상을 중심으로 어는점 내림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① 결빙방지단백질의 종류, ② 얼음 결정의 구조와 특성, ③ 열적 평형 상태의 유형과 사례는 윗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⑤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의 과정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은 블록해진 물 층에 해당하는데, 4문단에 의하면 그 내부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물 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한정된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표면의 물 분자가 내부의 물 분자보다 인력 방향이 제한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4문단에서 ㉠의 결빙방지단백질이 ㉡에 결합한 부분에는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6문단에서 ㉠의 결빙방지단백질에 의해 ㉡는 ㉢처럼 블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어는점이 내려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가 ㉢의 형태, 즉 평평했던 얼음 결정의 물 층이 블록하게 되면 물 층 표면의 물 분자 수가 늘어나고 그 물 분자들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6문단에서 ㉢처럼 블록해진 얼음 결정의 물 층 표면의 에너지는 평평한 ㉡ 표면의 에너지보다 높아져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세부 개념 파악하기

용질은 용매에 녹아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닷물의 경우, 용질은 염분, 용매는 물이다. 즉 A는 ‘용질’에 해당한다. 한편, 바닷물의 어는점 내림 현상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물 분자의 결합을 방해해서 일어난다. 즉 B는 ‘물 분자’에 해당한다.

[예술]

[27~30] <출전> 임영방, 「바로크」

27. [A형 27번과 동일]

28. [A형 28번과 동일]

29. [A형 29번과 동일]

30. [A형 30번과 동일]

[고전시가]

[31~34] <출전>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과거의 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등과 같이 앞 절과 뒷 절을 맞대응시키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와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에서 화자는 영단적 표현을 통해 동냥을 하고 사는 자신의 생활에 따른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만산초목

(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에서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추성(秋聲)’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에서 동냥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법을 사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윗글의 ‘손가락’이 부르튼 것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2>에서 ‘변화’를 겪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① 윗글의 ‘동냥’은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2>에서 ‘손님’의 ‘실운 말씀’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② 윗글의 ‘죄신날’을 끄는 화자의 행위는 유배지에서 겪는 <보기2>의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윗글의 화자는 ‘임금’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기2>의 ‘천은(天恩)’이라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현실에 복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2>의 청자로 볼 때, ‘학’은 임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소재로 <보기2>의 청자인 ‘손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

‘만언사답’은 ‘만언사’에 대해 화답의 방식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A]의 양반은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와 같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2>의 ㉠는 자연 현상 등의 예를 통해 청자의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①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훈계하고 있지 않다. ③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설득하고 있지 않는 반면 나는 청자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양반은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는다. ⑤ 양반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은 가을 날 새벽에 울면서 날고 있는 ‘외기러기’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임’을 떠올린다. 결국 ‘임’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소설]

[35~38] <출전> 작자미상, 「김진옥전」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일세성군이 될지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등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부마와 공주가 계락을 모의하는 장면, 태자에게 독이 든 탕약을 권하는 장면, 부마와 태자의 죽음, 화산도사의 도움, 천자의 국문 장면, 양산군이 태자를 살리는 장면, 역모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 등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비교적 빠른 서사 전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태자에게 독이 든 탕약을 먹인 공주가 천자에게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첩이 너무나 황궁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부마가 양산군에게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라며 거짓을 말하는 부분 등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우양공주는 천자에게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했다고 말하며 양산군이 역모를 꾀했다고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응철은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여 승하하시게 한 후 모역하려다가’라고 말하며 우양공주가 역모를 꾀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6. [출제의도] 서사의 흐름 이해하기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산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산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모리 할 줄 모르더라.’를 통해 부마는 ‘동조자’의 착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양산군은 태자가 승하했다는 궁녀의 말을 들은 후 천자의 부름을 받고 천자와 함께 태자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태자의 죽음을 듣게 된 김응철은 황화문 밖에서 수문장과 복병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공주는 쥔내로 들어가 천자에게 ‘양산군이 환자로 더불어 동모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계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하니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희생하실 약을 구하러 갔던 일을 아뢰고’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이 신이한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가 해소될 때 독자들의 긴장이 급속히 이완된다고 했으며,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는 장면은 신이한 존재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건 또는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자의 심리적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우양공주가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한 것은 양산군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며 이러한 시기심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했던 양산군의 과거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주의 계락을 통해 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우양공주가 태자의 탕약에 독약을 타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양산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다. 이는 영웅이 다시 위기에 몰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의 사건 전개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그가 신이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자, 영웅소설의 환상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초월적 존재인 화산 도사는 양산군이 처한 위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환약을 가져온다. 이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으로 적절한 진술이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양산군은 ‘일봉서’를 통해 우양공주의 계락을 알게 되고, 양산군에 대한 우양공주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환약’을 통해 태자를 살림으로써 양산군에 대한 천자(황제)의 신뢰가 유지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환약’은 인물의 과거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환약’을 통해 인물이 과거의 상황을 떠올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천자는 우양공주와 김응철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하지만, 양산군이 돌아와 ‘환약’으로 태자를 되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모를 모의한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양산군이 ‘환약’을 통해 우양공주의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일봉서’를 통해 우양공주의 계락을 알게 되었으므로 ‘일봉

서’를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39~42] <출전> 황석영, 「한씨연대기」

39. [A형 39번과 동일]

40. [A형 40번과 동일]

41. [A형 41번과 동일]

42. [A형 42번과 동일]

[현대시]

[43~45] <출전> 조지훈, 「마음의 태양」
정호승, 「폭풍」

43.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의인화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정서나 시적 분위기, 주제 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가)에서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 ‘한 송이 꽃’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그윽히 웃는’다고 표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핀 꽃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나)에서는 ‘폭풍’에 맞서는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① 반어적 표현이란 표현할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하강 이미지는 작품 속 대상이 땅이나 아래쪽 방향을 향하면서 나타나는 이미지인데 (가)와 (나)에는 모두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밤’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폭풍’이 거세진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이며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가)와 (나)에는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시구에 대하여 이해하기

㉠에는 ‘폭풍’, 즉 외부의 시련이 고조된 상황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라는 시어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새’나 ‘나무’가 처한 시련이 더 커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즉 ‘외부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상이 1연부터 7연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을 대상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여 시상의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시각적 이미지)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대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에서 화자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자세를 ‘피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힘들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며 역설적 발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 화자는 ‘높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며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

여 자신의 다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청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⑤ ㉤에서 ‘폭풍’에 맞서지 않고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는 ‘폭풍’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화자는 이 작품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옳지 않다고 하며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화자가 지양하는 모습이 ‘한 송이 꽃’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나)에서 화자는 ‘폭풍’을 경외하고 있지 않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을 통해 화자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고 있으므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②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특정한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송이 꽃’을 통해 자신도 삶에서 ‘육신의 괴로움’을 달게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한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고 있다. 즉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④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을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나)에서 ‘새’는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속을 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화자에게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하고 있다.